

무주반딧불축제 청소 대책 세웠다 무주군-소닉에너지 '맞손'

군, 축제기간 청소상황실 운영·매일 청소상태 사전 점검·쓰레기 집중 수거

무주군이 3년만에 실시되는 제26회 반딧불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쓰레기 관리 대책을 세우는 등 민간의 준비를 갖췄다.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군은 축제의 성공여부는 쓰레기 관리 대책에 있다는 판단아래 청소상황실 운영 등 청소장비 및 인력 배치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등을 골자로 한 무주반딧불축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세웠다.

군은 축제기간중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을 배치해 주간(09:00~10:30) 및 야간(18:00~23:00) 청소, 그리고 행사 전후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서에서 자체 청소를 하며, 매일 축제장 청소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이러 행사장내 다중이용 장소에 분리수거함 40개를 배치하고 먹거리장터 주변과 천원국수 행사장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20개를 배치한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악취 등을 감안해 매일 수시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체육센터와



무주군청 전경

평생교육원 앞, 최북미술관 등 관광객 이동 동선이 많은 지역에 이동화장실 6대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오는 26일 축제를 앞두고 실과원소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가지 및 행사장 주변 담당구역을 지정해 반딧불축제 대청소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막식 다음날인 28일과 폐막식 다음날인 9월 5일 행사장 주변과 무주읍 시가지 대청소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위생과 이형재 과장은 "반딧불

축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바로 청소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바로 미터가 될 것이다"며 "3년 만에 실시되는 축제인 만큼 전국에서 몰려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 무주에서의 휴식과 감동을 선사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은 매일 축제장 청소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원봉사자와 청소업체 인력 및 사역 인부를 활용해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선다. /무주=전문선 기자

LPG배관망 시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위한 협약 체결

무주군이 18일 무주군 LPG배관망 시설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소닉에너지와 체결했다. 무주군 LPG배관망 시설 민간 투자사업은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가구의 연료 사용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황인홍 군수와 소닉에너지 박기종 대표는 군수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무주군 LPG배관망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사업은 도시가스의 미공급 지역과 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연료비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로써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존 사용하던 연료인 LPG용기·

심아전기·화목난로 등의 연료와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닉에너지 측은 조만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며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군민과 LPG 공급업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민자투자 협약으로 인해 농촌 마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LPG를 안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축산물 위생 점검·이력제 특별단속

장수군이 추석 명절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생산·유통 단계별 위생관리를 강화해 위해 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군은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등 적정 처리(폐기 등)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냉동 식육을 해동해 냉장 식육으로 생산·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및 유통

기한 위반 △삼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준수 여부 등이며 유통단계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이력번호 허위 기재 등의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영업 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종진 축산과장은 "명절 대비 축산물 점검을 통해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미리 차단해 소비자가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추석 명절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점검

무주군은 추석을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하는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판매업 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펼친다.

군은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 제품으로 생산·판매해유를 비롯한 포장용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

냉동 기준 준수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 및 적정처리여부 등을 중점 살핀다. 이외에도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백원준 팀장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성수품들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축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 단계별 위생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부정 축산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본격 실시

진안군, 10월 14일까지 총 101개소 대상 점검

진안군은 오는 10월 14일까지 59일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자율안전 점검 실천운동 확산을



진안군청 전경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회적 안전운동이다.

점검대상은 중앙부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진안고원 시장 등 26개소와 관내 지역 실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한 75개소 등 101개소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16일에는 전춘성 군수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사전 점검회의를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집중안전점검은 모든 관리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 진안군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문화 운동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약국 2개소 추가

진안군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담당약국을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관내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김약국, 볼약국, 진안약국, 제일약국, 우리사랑 약국 등 5개소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확진 환자의 먹는치료제 처방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백제, 세계로 약국 2개소를 담당약국으로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진안군 확진자 관리 의료기관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9개소(구세의원, 김흥기과정의학과의원, 마령가정의학과의원, 마이외과정형외과의원, 송외과의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진안군의료원, 진안원광의원, 진안의원), 24시간 의료상담센터(진안군의료원) 1개소, 자율임원 병원(진안군의료원) 1개소가 운영 중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면서, 재산 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면서, 재산 가액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